

오바다 이야기

* 10/29(금) 오바다 ❶ 1장

오바다 1장		
에돔 고발 1-9절	징벌 선포 10-15절	이스라엘 회복 16-21절
<p>▶ 에돔의 교만, 하나님의 선포 1-7절</p> <p>[선포의 대상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에돔(1) / 이스라엘(16) <p>[에돔 vs. 여호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만, 유다 모욕, 학대 / 수탈, 배신, 파멸 <p>▶ 에서의 산, 하나님의 심판 8-9절</p>	<p>▶ 에돔의 죄, 하나님의 질책 10-14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· 포학 / 방관 / 동조 · ~ 할 것이 아니며(12-14) <p>▶ 다가온 심판의 날 15절</p>	<p>▶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 16-21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야곱 족속 vs. 에서 족속 · 구원의 약속, 완전한 회복

Before 줄치며 읽기

하나님의
<선포>를 묵상하며
통독해 보십시오.

“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(3).”

에돔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.
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.

교만해서 망합니다. 교만하면 망합니다.

After 묵상하기

나에게는
주님을 향한 화답이
있습니까?

• 서론 : 화자의 화두 <교만>

고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.
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기 힘듭니다. 교만의 이유입니다.

“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(4).”

여호와의 말씀 앞에서, 유리한 지리적 상황이 무색해집니다.
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(8-9).

죄를 인정하고 뉘우쳐,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.
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.

“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
넘어짐의 앞잡이니라(잠 16:18).”

마음을 속이는 <교만>을 경계하십시오.
하나님을 속일 순 없습니다. 늘 하나님 ‘속’입니다.

참고도서

100주년기념 성서주석
두란노 HOW주석
통성경 길라잡이
이야기로 푸는 소선지서

이스라엘과 에돔은 야곱과 에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(창 25:23).
이스라엘은 <동생> 야곱의 후손이고, 에돔은 <형> 에서의 후손입니다.
형제는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. 에돔, ‘가깝고도 먼 나라’입니다.

● 본론 : 화자의 화법 <질책>

출애굽을 할 때, 형은 동생의 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(민 20:18).
하나님께서서는 동생에게 형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(신 23:7).

형은 모압, 암몬과 손을 잡고 쳐들어왔습니다.
동생을 공격하고,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(대하 28:17).
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,
형은 동생의 적을 도와줬습니다. 그리고 멀리 서있었습니다(11).
포로로 끌려간 동생은 형을 용서할 수가 없어 기도했습니다(시 137:7).

“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<아니며>
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<아니며>
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<아니며>
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<않을 것이며>
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<않을 것이며>
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<않을 것이며>
네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<않을 것이며>
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<않을 것>이니라(12-14).”

하나님께서 나무라십니다. <형>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.
“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(15).”

● 결론 : 화자의 화제 <회복>

이스라엘은 쓴맛을 보았습니다. 이제, 그 분노의 큰 잔을 옮기실 것입니다(사 51:22-23).

야곱의 <불>이 에서의 <지푸라기>를 태우고,
<시온 산>에 올라 <에서의 산>을 심판케 하실 것입니다(18, 21).

기억하십니까? 마침표(.)의 다음 문장, 끝 페이지의 다음 장.
<회복>입니다. 완전한 회복이 주님께 있습니다.

<오직 정의를 물 같이,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>,
<하나님의 한없는 사랑>으로,
<오직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>하십시오(암 5:24, 호 3:1, 미 6:8).
쓰러진 그곳에서, 강하게 하십니다. 다시 일어나게 <회복>하십니다.